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The Effects of Parental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Depression of School Aged Children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이영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민하영

Division of Social Welfare, Cheonan University

Lecturer : Young-Mi, Lee

Dept. of Child Study, Catholic Univ. of Daegu

Assistant Professor : Ha Yeoung, M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arental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depression of school aged children. The subjects were 386 6th graders (206 boys and 180 girls) from 6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Kyoung-gi Province. Questionnaire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children's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and parental behavior.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program, including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al analysis, ANOVA, and regression.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children who perceived their parents' support and warmth as higher were less depressive than those who perceived them as lower. (2) The children who were good at school were less depressive than those who were not. (3) There were interaction effects of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parental behavior perceived by children on

Corresponding Author: Min Ha Yeoung, Dept. of Child Stud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30 Kumlak-1ri, Hayang-up, Kyeongsan-si, Gyeongbuk, 706-763, Korea Tel: 82-53-850-3545 Fax: 82-53-850-3520 E-mail: mhycd@hanmail.net

their depression.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as more influential on the depression of school aged children than the parental behavior perceived by children.

주제어(Key Words): 부모의 양육행동(parental behavior),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우울성향(depression)

I. 서론

영양 및 생활여건이 풍요로운 가운데 성장하는 오늘의 아동들은 과거의 아동에 비해 신체적으로 더 일찍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적응해야 하고 가정 내외에서는 다양한 압력과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학령기 말 아동은 학업에 대한 부담은 점차 커지고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또래관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만 인지적으로는 미숙하고 심리 및 정서는 불안정하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아동들이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에서 겪는 실패나 좌절 끝에 저지른 비극적 행동을 종종 보도하고 있고, 아동의 정서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오경자, 이해련, 임양화, 1990)에서도 학령기 아동이 우울, 불안 및 좌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 우울증이 존재하느냐에 대하여는 1960년대 중반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정식 병명으로 기술되기 시작하였고(조수철, 최진숙, 1989) 아동에게서도 성인과 유사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신체적, 정신운동적 증상을 포함하는 우울증이 존재한다는 기본입장이 제기되었다. 넓은 의미의 우울증은 우울한 정서상태, 의욕상실, 주의집중력 감퇴 등의 심리적 부적응 증상 뿐 아니라 신체적 부적응 증상들-예를 들면 식욕의 변화, 체중의 변화, 불면증 등을 수반한 복합적인 증상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Brooks-Gunn & Peterson, 1991; Megg & Forness, 1991).

아동기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습득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우울증은 사회적 유능감, 대인관계 형성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의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은정, 오경자, 1992). 학령기는 우울증상의 표현양상

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전환기로 그 전반기에는 슬픔,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우울감을 경험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그 후반기에는 점차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특징적인 죄책감, 자기비하,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이 나타난다(김은정, 오경자, 1992). 청소년기 우울증은 성인과 달리 우울 감정이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나서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반항적이 되고 무단결석, 가출, 신체 증상 호소, 성적 저하로 위장되어 나타나므로 발견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우울 증상을 방치할 경우 학습장애, 자살, 약물남용, 비행, 행실장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그러므로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단순히 발달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며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나타난 우울증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빨리 발견하여 조기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울증이 발생하는 시기 및 관련된 변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요청된다.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우울증은 자살 생각에 중요한 영향(박광배, 김중술, 오경자, 신민섭, 1990; 박광배, 오경자, 신민섭, 199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살문제가 단순히 청소년기 특유의 정신적 불안정성이나 충동성의 결과라기보다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 및 심리적 갈등과 관련됨을 밝혔다. 따라서 전반적인 성격발달에 아동기 우울증이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며 우울증에 선행되는 심리사회적 환경과 개인적인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우울 증상 및 적응의 문제를 초래하는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크게 아동을 둘러싼 심리사회적 환경과 아동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중 심리사회적 환경은 아동과 가장 빈번히 접촉하는 부모와 또래, 학교환

경이 대표적이다. 소아 우울 환자의 가족환경 특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소아 우울환자는 혼란스럽고 거부적이며 비판적, 적대적인 가족환경에 노출되는 경향을 보였고(McConville & Bruce, 1985), 공격적 행동장애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를 애정이 없고 간섭이 심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Rey & Plapp, 1990)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 또한 부모의 태도를 애정이 없고 과보호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에서 자살사고와 우울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Martin & Waite, 1994)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현만, 한성희, 1996)에서도 부모의 돌봄이 중학생의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모의 과보호는 우울 성향과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녀의 우울 성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어머니의 돌봄이 적거나 과보호가 많은 것으로 지각하는 중학생의 우울 성향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환경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가 보고 되었다(전성일, 이정호, 이기철, 최영민, 1996). 우울과 관련된 요인 또는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개 성인 및 청소년(이현만, 한성희, 1996; 전성일 외 3인, 1996)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적지만 역시 부모의 지원이 아동의 우울과 부적 상관(심희옥, 1997)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아동기의 우울 성향이 부모 및 가정의 영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족이며 이러한 가족과 친구관계가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대한 완충작용을 한다(Aro, Hanninen, & Paronen, 1989). 가족의 지지도가 높은 경우에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Hotaling, Atwell, & Linsky, 1979) 부모나 친구들의 지지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신신체증상(psychosomatic symptoms)를 경험할 위험이 크고 특히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직면했을 때 그 위험이 크다(Aro et al, 1989).

학령기에 아동은 가족과 더불어 지내는 시간만큼

학교에서의 생활도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유아기 이후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에게 학교 및 또래의 영향은 크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및 학교생활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학교 공부에 보내는 시간의 양과 우울증은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학교 공부 중에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나 만족감 정도는 우울증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인다고 한다(Reich, McCall, Grossman, Zautra & Guarnaccia, 1988; Reich & Zautra, 1983). 즉 아동이 학교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급우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담임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과목이 어려워서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학교생활에서 열등감을 느낄 때 이들은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권이중, 1991)고 하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심희옥, 1997) 학업 성취나 교사의 지원은 아동의 우울 성향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되었다. 그러나 학교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 학업성취나 교사의 지원과 같은 요인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과 함께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결과가 아동의 우울 성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학교 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의 양상을 살펴보고 부모 요인과 학교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아동기의 우울 성향을 이해하고 아동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돕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 적응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6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 42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는 남아 206명, 여아 180명으로 총 386명이었다. 소득이 월 200만원 이상(소연경, 2000)인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였는데 소득이나 성별 등 응답자의 배경에 관한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은 조사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우울성향이 차이가 있고 여자의 우울성향이 일관되게 남자보다 높다고 보고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성별에 따라 우울성향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분석하였다¹⁾.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수철, 이영식, 1990)에서도 남아보다 여아가 다소 높은 우울정도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른 우울증의 빈도 변화를 고찰(김은정, 오경자, 1992)한 연구에서도 학동기 이전에는 우울증의 유병율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고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여자의 경우 유병율이 더 높다(Reynolds, 1985)고 밝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우울 성향에 대해 분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우울성향 척도, 부모양육행동척도, 학교적응척도를 구성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우울 성향 척도

학령기 아동의 우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1985)가 개발한 아동용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CDI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우울 정도를 보고하는 자가 우울 평정 척도로, 우울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 정서(5문항), 행동장애(7문항), 흥미상실(7문항), 자기비

하(4문항), 생리적 증상(4문항)으로 구성(총 27문항)되어 있다. 각 문항은 우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세 문장으로 구분된 증세를 제시해 놓았다. 예를 들어 '나는 가끔 슬프다', '나는 자주 슬프다', '나는 항상 슬프다'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세 문장 중에서 지난 2주간 경험한 증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1점에서 3점이며 총점의 범위는 27-81점이다. 이 연구 대상의 우울성향 점수범위는 38~76점 이었고 평균은 51.6, 표준편차는 7.01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음을 나타내며, 27문항으로 구성된 CDI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4$ 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Furman과 Buhrmester(1985)의 관계망 척도(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 NRI), Lempers, Clark-Lempers 그리고 Simons가 개발한 PQ(Parenting Questionnair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내용 타당도는 3명의 아동학 관련 전공자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9점에서 45점 사이의 응답범위 중 16-43점의 점수 범위가 나타났으며 평균 34.0에 표준편차는 5.19였다. 높은 점수는 부모의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학교적응 척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선(1998)의 학교 적응 척도를 참고하여, 일부 용어를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학교 적응 척도

1) 성별에 따른 우울성향 분석결과

	우울성향 평균(표준편차)	t
남아	51.74(7.06)	.36
여아	51.49(6.96)	

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 규범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가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며 최소 29점, 최대 75점이었으며 평균은 60.6, 표준편차는 7.84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교 적응을 의미한다. 2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3. 연구절차 및 분석

서울과 경기 지역의 6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용 질문지는 연구목적에 충분히 이해한 각 학교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에게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후 386명의 자료를 Window형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 변량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우울성향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라 아동의 우울성향이 다른지를 분석한 결

과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해 부모의 양육행동 ($F=5.51, p<.01$) 및 학교적응($F=111.90, p<.001$)은 모두 주효과를 보였다(표 1).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은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F=4.07, p<.01$). 아동의 학교적응 정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얼마나 지지적이고 온정적으로 지각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우울성향이 다르며 학교적응을 잘 할수록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이고 지지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우울성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2.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수준에 따른 우울성향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수준²⁾에 따라 아동의 우울성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부모의 지지 및 온정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이나 중간 수준으로 지각하는 집단 간에는 우울 성향이 차이가 없었지만 부모의 지지 및 온정을 높게 지각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 성향이 더 낮았다.

2)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양육행동의 평균(34.0)과 표준편차(5.19)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의 점수가 평균+ $\frac{1}{2}$ 표준편차이상인 경우를 높은 집단, 평균+ $\frac{1}{2}$ 표준편차 미만인 경우를 평균- $\frac{1}{2}$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를 중간 집단, 평균- $\frac{1}{2}$ 표준편차 미만인 경우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우울 성향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우울성향	주효과	상수 6956.99	4	1739.25	58.70***
	상호작용	부모양육 325.34	2	163.17	5.51**
		학교적응 6630.65	2	3315.25	111.90***
		학교적응×부모양육 482.70	4	120.68	4.07**
	잔차	9807.01	331	29.63	
	계	17246.69	339	50.88	

p<.01, *p<.001

〈표 2〉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우울성향의 평균 및 Scheff' 검증

부모의 양육행동	학령기 아동의 우울 성향 평균(표준편차)	Scheff' 검증
낮은 집단(144)	53.40(6.73)	a
중간 집단(130)	51.94(7.29)	a
높은 집단(86)	48.67(6.04)	b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 및 온정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되, 아동이 부모의 지지와 온정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 때에만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보여준다. 즉 아동이 부모의 지지와 온정을 지각할 때에 부모의 지지 및 온정의 역할이 발휘되며 부모가 아동자신에게 충분히 온정적이고 지지적이라고 느끼는 아동만이 심리적 적응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다

3.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³⁾에 따라 아동의 우울성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표 3〉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따른 우울성향의 평균 및 Scheff' 검증

학교적응	학령기 아동의 우울 성향 평균(표준편차)	Scheff' 검증
낮은 집단(106)	58.17(6.80)	a
중간 집단(170)	49.92(4.99)	b
높은 집단(82)	46.61(4.82)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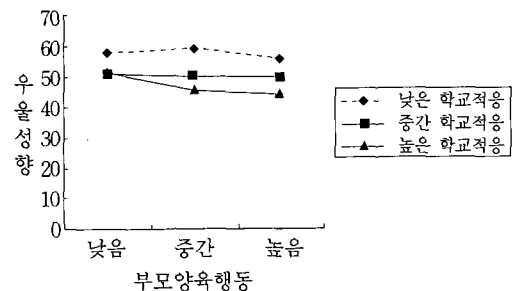
그 결과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 높은 집단은 세 집단 상호간에 아동의 우울 성향이 차이를 보였다.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우울 성향도 낮았고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우울 성향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아동의 우울성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의 양육 행동 및 학교적응의 상호작용효과

변량분석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해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4.07, p<.01$). 이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은 부모의 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성향이 높았다. 즉 아동의 학교생활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이 부모의 지지나 온정을 높게 지각하든 낮게 지각하든 우울 성향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적응 수준이 중간인 집단은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성향이 더 낮았지만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 수준에 따라서는 우울성향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충분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이라면 부모의 지지 정도에 관계없이 학교적응을 잘하는 아동에 비해 우울성향이 더 높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단,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부모의 지지수준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아동의 우울성향이



〈그림 1〉 부모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3) 학교적응 수준의 구분은 학교적응 점수의 평균(60.6)과 표준편차(7.84)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었다. 학교적응의 점수가 평균+ $\frac{1}{2}$ 표준편차이상인 경우를 높은 집단, 평균+ $\frac{1}{2}$ 표준편차 미만인 경우를 평균- $\frac{1}{2}$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를 중간 집단, 평균- $\frac{1}{2}$ 표준편차 미만인 경우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부모의 지지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 성향의 점수가 낮아 부모의 지지가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적응 수준에 의해 중재된다고 볼 수 있겠다.

아동의 우울성향이 학교적응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부모 및 가정의 역할 못지 않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부모의 지지나 온정 수준에 따라 차이 없이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아동의 우울 성향이 높았던 결과는 학령기 말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더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로부터 적절히 보호받거나 지지 받지 못하고, 학교생활에의 적응력이 낮은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5.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과 우울성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교적응간의 상관관계가 $r=.28$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높지 않았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은 아동

의 우울성향을 46% 설명해주었다. 특히 아동의 학교적응($\beta=-.63, p<.001$)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beta=-.15, p<.001$)에 비해 우울성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말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부적응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보다 학교 및 학교생활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우울 성향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자 초등학교 6학년 아동 386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 우울성향을 질문지로 조사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우울성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 우울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고(문미영, 2001; 신춘자, 1992; 한미현, 1996), 부모의 지원과 아동의 우울 성향 간에 의미 있는 부적상관이 있다고 밝힌 연구(심희옥,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가 더욱 온정적이고 지지적일수록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우울 성향을 약화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점차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넓은 사회를 경험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지만 가정 및 부모는 늘 아동에게 있어 지지기반이 됨을 보여준다. 청소년기에도 친구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지만 청소년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가족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에 대해 가족이 완충작용(Aro et al, 1989)을 하는 것처럼 아동에게 있어서도 부모의 행동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부모가 매우 지지적이고 온정적이라고 느끼는 아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우울성향이 더 낮았고 부모의 지지가 낮다고 느끼는 아

<표 4>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적응 : 회귀분석

변인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N=339)	
	B	β
상수	92.02	
부모의 양육행동	-.20	-.15***
학교적응	-.55	-.63***
F	142.96***	
R ²	.46	

*** $p<.001$

동들과 부모의 지지가 보통 수준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들 간에는 우울성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부모의 지지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준다. 즉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하고 부모로부터 수용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는 심리적 적응에서 부모의 지지적 역할이 발휘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부모가 하는 역할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더불어 이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역할은 자녀가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느끼는가에 달려있다는 점도 지적해준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따라 아동의 우울성향이 뚜렷이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경우일수록 우울성향이 분명히 더 낮았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일수록 우울성향이 더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도 학교 공부에 보내는 시간의 양과 우울증은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학교 공부 중에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나 만족감 정도는 우울증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Reich, et al., 1988; Reich & Zautra, 1983)고 보고했고 학업성취나 선생님의 지원이 아동의 우울 성향과 의미 있게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심희옥, 1997)고 밝혔다. 또한 아동이 학교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급우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담임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학교생활에서 열등감을 느낄 때 이들은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 불안 등의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권이중, 1991)고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며 학령기 말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이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나 학업에 대한 태도 등은 교우관계나 교사의 관심과 지지, 학업 과정에서의 만족감과 상호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저학년애 비해 고학년 아동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길고 교사의 보호적 역할은 점차 줄어든다. 그리고 이미 형성된 또래관계 형성 기술을 기반으로 교우와 상호작용하므로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동이

라면 학교에서의 생활이 원활할 수 없다. 더욱이 또래관계를 통한 사회적 발달이나 정서적 만족감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학업과 성취만을 강조하는 현실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부모 및 교사는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대책과 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적응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서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부모의 지지수준에 관계없이 다른 집단의 아동에 비해 우울성향이 가장 높았고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부모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성향도 더 낮았다.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관련된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 요인이 모두 유의미하되 학교적응은 아동의 우울성향과 더 긴밀하게 관련됨을 제시한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고 약화된 현대 가족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심리적 건강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영향 못지 않게 학교에서의 결과에 의해 더 뚜렷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에서 적응 곤란을 경험하는 아동인 경우 부모의 지지가 높더라도 우울성향이 높다는 결과는 아동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학교 및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주며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학교, 교사, 부모 역할이 얼마나 긴급한가를 시사해준다.

넷째, 학교적응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을 46%까지 설명해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적응이 아동의 우울성향을 설명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 우선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상태에 주목해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학교생활에서 적응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또래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아동들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학습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평가함으로써 아동의 학습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 학교에서 적응 문제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청된다. 단, 학교내 교사의 역할의 한계를 고려할 때 학교 내에서 교사를 지원하여 아동의 지도와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학교 내 아동복지 사업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 학교사회사업실을 마련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중등학교의 사례(예, 영상고등학교 : 1997년 영등포여성상 시기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로 지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측의 관심과 교사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통해 심리적 적응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단일 연령대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으므로 아동기 전반의 우울 성향에 대한 결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다른 연령대의 아동들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아동기의 우울 성향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아동의 우울 성향을 이해하기 위한 요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아동의 우울 성향이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 성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모 및 가정 요인과 교사 및 학교 요인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온정 및 지지 그리고 원만한 학교 적응이 결정적 요소임을 밝혀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심리적 적응 문제를 겪는 아동의 지도에 있어서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동의 학교 생활 및 학교에 대한 적응이라는 점을 밝혀 주었고 그에 따른 학교와 교사의 역할, 그리고 부모와 교사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김은정, 오경자(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 증상.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1), 117-128.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문미영(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광배, 김중술, 오경자, 신민섭(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박광배, 오경자, 신민섭(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86-297.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국희, 조맹제(1997). 지역사회 거주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율. *정신의학*, 22(2), 11-24 .

소연경(2000).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14.

신춘자(199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오경자, 이혜련(1990). 아동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29(2), 452-462.

오경자, 이혜련, 임양화(1991).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 특성. *소아정신건강*, 12(3).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2001). 아동의 또래 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이현만, 한성희(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167-178.

전성일, 이정호, 이기철, 최영민(1996). 청소년의 우

- 울증과 우울행동 장애에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1), 34-43.
- 조수철, 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5.
- 조수철, 최진숙(1989). 소아, 청소년의 우울 장애. *신경정신의학*, 28(3), 422-436.
-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 Aro, H., Hanninen, V. & Paronen, O. (1989).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psychosomatic symptoms among 14-16 year old adolescents. *Soc Sci Med*, 29, 1051-1056.
- Brooks-Gunn, J. & Peterson, A. (1991). Studing the emergence of depression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J. Youth Adolescence*, 20, 115-119.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77-290.
- Hotaling, G. T., Atwell, S. G. & Linsky, A.S. (1979). Adolescent life changes and illness : a comparison of three models. *J. Youth Adolescence*, 7, 393-403.
- Kovacs, M. (1983).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 A self-rated depression scale for school aged youngsters*. Univ. of Pittsburgh.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between marital and child problems. In J. P. Vincent(Eds.)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ment, and theory*, 2, 131-182. Greenwich, CT: JAI.
- Levy, D. M. (1943). *Maternal overprotection*.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 Martin, G. & Waite, S. (1994). Parental bonding and vulnerability to adolescent suicide. *Acta Psychiatr Scand*, 89, 264-254.
- McConville, B. J. & Bruce, R. T. (1985). Depressive illn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A review of current concepts. *Can J Psychiatry*, 30, 119-129.
- Parker, G. (1979). Patern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 J Psychiatry*, 134, 138-147.
- Parker, G. (1983). Paternal "affectionless control" as an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 A risk factor delineated. *Arch Gen Psychiatry*, 40, 956-960.
- Parker, G. (1993). Parental rearing style : Examining for links with personality vulnerability factors for depression.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28, 97-100.
- Parker, G. & Lipscombe, P. (1979). Paternal overprotection and asthma. *J Psychosom Res*, 23, 295-299.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Reynolds, W. M. (1985).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diagnosis, assessment, intervention strategies and research. In T. R. Kratochwill (Ed.), *Advances in Social Psychology*, 4, 133-189. Hillsdale, NJ: Lawence Earlbaum.

(2003년 11월 30일 접수, 2004년 1월 8일 채택)